

42 | 자동차 제조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성별	남	나이	40세	직종	자동차 제조업	업무관련성	낮음
----	---	----	-----	----	---------	-------	----

1 | 개 요

근로자 원○○은 ○○자동차(주)○○공장에 1996년 3월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년 10월말 경부터 오른쪽 골반이 쭈시고 다리가 당기면서 쥐가 나는 듯한 증상이 심해져 정밀 검사한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 받았다.

2 | 작업내용 및 환경

원○○은 ○○자동차(주)에 1996년 3월 입사하여 1998.09까지 트림라인에서 근무하였고, 2002년까지는 엔진와이어링 정렬, 테일게이트 가스스프링 장착작업을 수행하였고, 2002~2007년 12월 휴직 시까지는 테일게이트 가니쉬 가장착 및 테일게이트 스테이 탈거작업, 루프 가니쉬 장착 및 Front Door 스크류 리테이너 장착작업을 수행하였다. 2008년 2월 복직 후 야시반에서 근무하고 있다. 월 20회 2시간 정도의 연장 근무를 하고 하루 10시간씩 주야 2교대의 근무 형태이다. 테일게이트 가니쉬 가장착 및 스테이 탈거 작업의 경우, 허리굽힘이 있는 작업으로 REBA 전체점수뿐만 아니라 몸통부위만의 위험도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스테이 탈거작업은 위험도는 높으나 노출비율이 평균 2시간 정도로 비교적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프론트 도어 스크류 리테이너 장착 작업의 경우 허리를 굽힌 상태와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두 가지가 관찰되었다. 이 중 허리굽힘 형태에서만 몸통만의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다. 엔진와이어링 정렬작업은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작업하고 있어 무릎 등에는 위험부담이 있으나 허리의 위험부담은 낮게 나타났다. 가스스프링 장착을 위한 테일게이트 들기작업시 몸통부위만의 위험도는 보통이상으로 분석되었으나 전체적인 위험도는 보통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3 | 의학적 소견

평소 즐기는 운동은 없었고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특별한 과거력이나 교통 사고도 없었다. 2006년 2월 허리통증이 심하여 물리치료 후 호전, 계속 근무했으나 2007년 7월 작업 중 허리가 뜨끔하여 다시 진료를 받았으나 우측 골반이 쭈시고 우측 하지가 쭈시는 등 증상이 심해졌다. MRI 판독 결과 제4-5요추간판의 중앙부 돌출과 제2, 3, 4 요추의 상부 종판에 쉬모를 결절 (Schmorl's node)이 보인다고 하였고 요추 MRI는 피재자의 연령대의 일반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퇴행의 정도도 해당 연령대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다발성 쉬모를 결절은 장기간의 노동이나 외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유년기 때부터 동반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였다. 또한 피재자의 우측 방사통을 일으킬 만한 병변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외상의 흔적으로 볼 수 있는 병변이 없었다. 하지의 전기 생리학적인 검사에서 신경전도 속도는 정상이었으며 근전도 검사에서 우측 5번 요추신경에 신경근병증이 의심된다고 하였다.

4 | 결 론

근로자 원○○은

- ① 요추 제 4-5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된 후 의뢰되었는데,
- ② 영상의학상의 요추간판탈출 정도가 경미하여 피재근로자의 증상호소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전기생리학적 검사 또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한다고 보기 힘들며,
- ③ 작업에 대한 인간공학적 평가 결과 전반적인 공정에서 중량물 취급이 없으며 일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관찰되나 해당 작업의 노출 시간이 길지 않으므로,

근로자 원○○의 요추제 4-5번 추간판탈출증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